

실험에서 제기되었듯 수량이 좋으나 숙기가 기존 재래종보다 늦은 특성이 있어 농가 보급에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실험 결과 수량적인 차이가 크지 않아 여타 다른 품종과 비슷한 시기에 수확을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늘의 상품율과 연관되어있는 구경의 경우 ‘홍산’과 ‘화산’은 모든 처리에서 특상품 기준인 5cm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한산’의 경우 상품 기준인 4cm이상의 빈도수가 높다. 따라서 처리에 따른 수량 및 상품율의 차이는 크지 않으므로 수확기는 관행적으로 실시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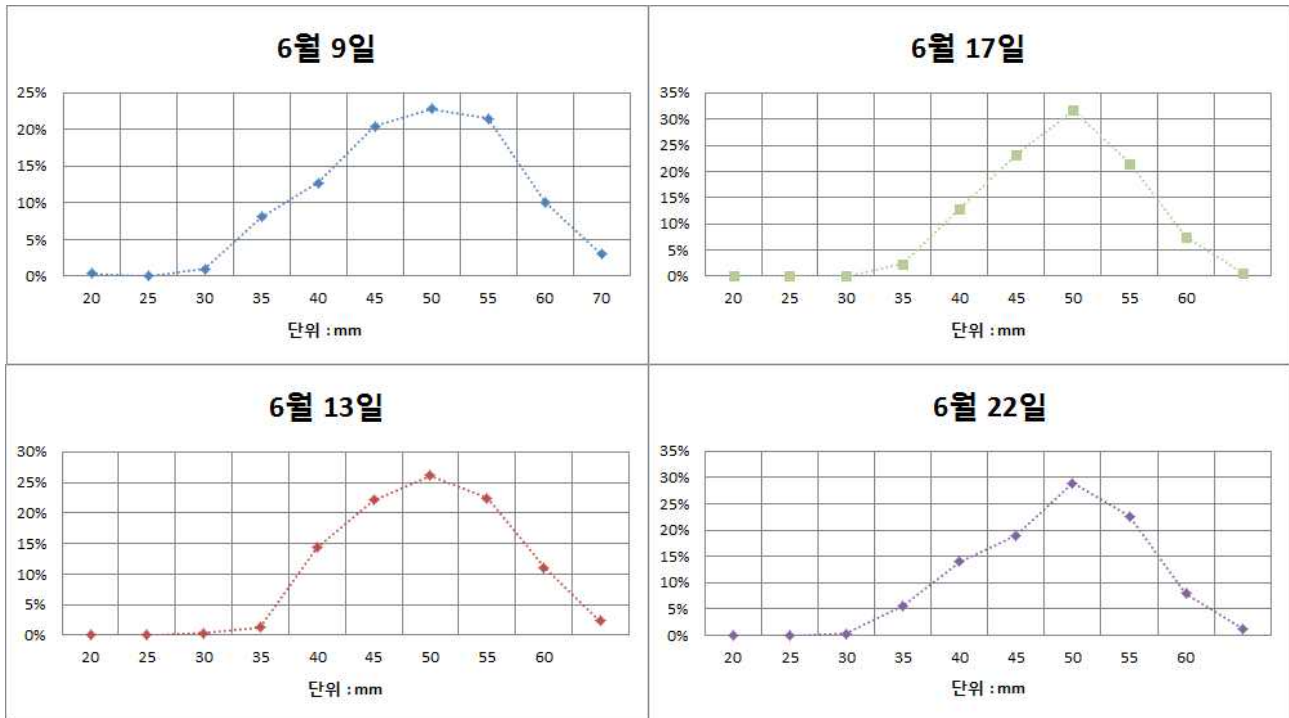


그림 16. ‘홍산’ 품종의 수확 시기에 따른 상품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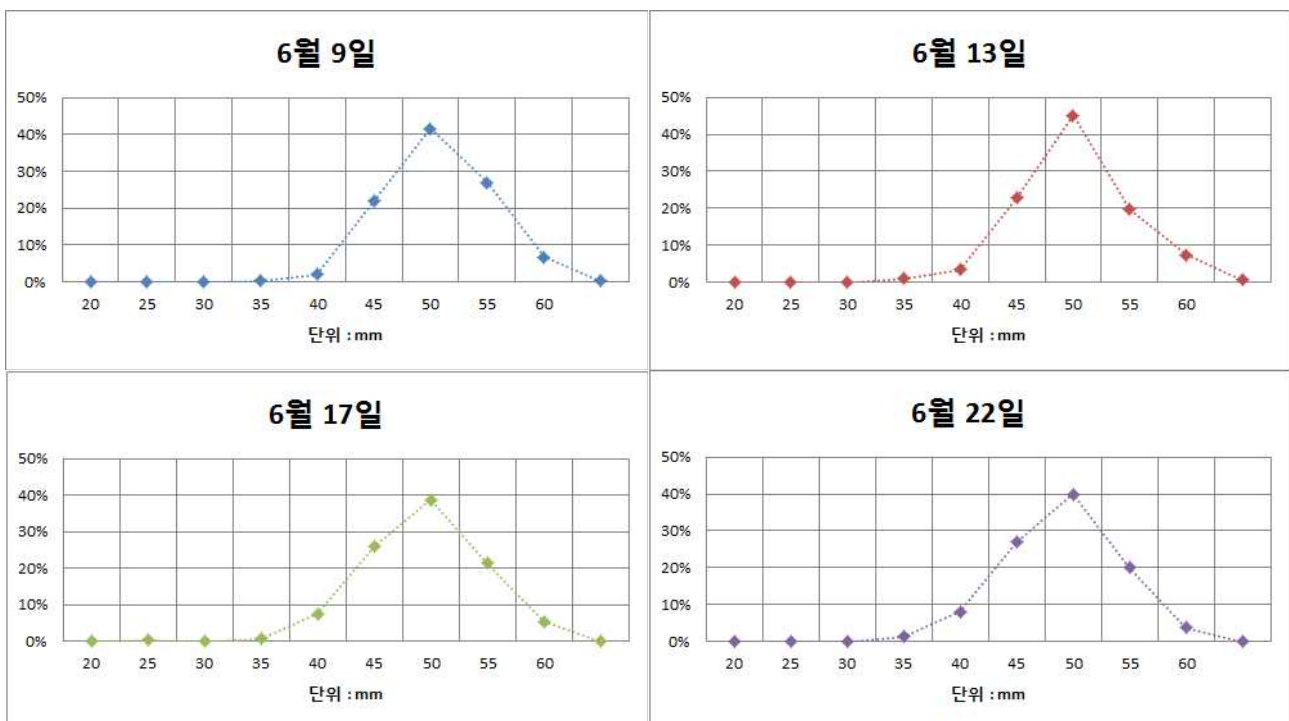


그림 17. ‘화산’ 품종의 수확시기별 상품율